



국내 ESCO제도 활성화의 숨은 일등 공신

■이선호 기자(w3master@energycenter.co.kr)



“ESCO 들은 에너지절약 전선의 야전군이다.” 산자부의 오경찬 사무관이 주장하는 바는 명확하다. 정부는 전투에 필요한 총알을 공급할 테니 ESCO들은 총과 무기를 준비해서 열심히 싸워주기만 하면 된다는 논리다. 따라서 어느 정도는 ‘야전군’의 수가 늘어나야 되고 그래야 생존확률도 높일 수 있다고 그는 말한다.

오 사무관은 98년 3월부터 ESCO관련 업무를 담당하기 시작했다. 그가 ESCO업무의 주무관이 된 98년도 ESCO자금은 296억원. 그 해를 기점으로 정부지원자금의 규모는 매년 대폭 상향 조정돼 99년 648억원, 지난해는 894억원에 달했다. 올해 예정된 자금은 924억원. 그것도 연말이 되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SCO업무를 맡았던 98년 이전에는 자금이 남아돌아 고민이었는데 이제는 모자라서 고민할 정도로 ESCO사업은 성장 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국내의 ESCO시장규모를 2조5천억원으로 보고 있는데 올해는 확실히 1천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이며 조만간 정부의 예산배정도 2천억원대에 진입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가 예상한대로 ESCO등록 기업수도 폭발적으로 증가해 1월말 현재 106개사를 넘어서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기술집약적이고 자금력을 갖춘 전문 ESCO들을 집중적으로 육성하여 시장경제논리에 의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오 사무관이 밝힌 올해의 중점사항은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개선과 아울러 투자측면에서의 공공부문 ESCO사업 확대에 요약할 수 있다. 많은 ESCO들의 불만사항인 팩토리링제도의 이용이 현재 25~30%대에 머물고 있다는 분석 하에 조만간 50%대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금융기관들을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한편 신용대출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또한 ESCO들이 안정적으로 시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 특히 교육환경개선사업과 연계하여 학교시설에 대한 ESCO사업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이는 다시 말하면 공공기관에서의 ESCO사업을 통해 ESCO들의 신인도를 상



우리나라 ESCO사업은 정부가 직접적이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한다는 점에서 ESCO의 기술력이나 자금력을 통한 시장논리에 의해 진행되는 미국, 캐나다와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덕분에 발전 속도가 무척 빨라진 것은 사실이지만 ESCO의 기본은 기술과 자본이다. 이제 ESCO들은 일방적인 정부의 지원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기술력을 배양하고 자금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승시키겠다는 복안이기도 하다.

ESCO시장으로의 민간자본 유입이 궁극적인 정책목표, 진단시장 활성화도 시급한 과제

또 ESCO사업이 조명에 국한하지 않고 점차적으로 냉난방, 폐열회수, 산업공정개선 분야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과 관련, VA 등과 연계시켜 ESCO들의 기반을 조성해줄 예정이다. 특히 지난해 처음 실시된 ESCO들의 VA참여업체에 대한 진단 참여는 소기의 성과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올해도 지속적으로 ESCO들의 진단 참여를 독려할 방침이다.

“우리나라 ESCO사업은 정부가 직접적이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한다는 점에서 ESCO의 기술력이나 자금력을 통한 시장 논리에 의해 진행되는 미국, 캐나다와는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가의 에너지절약정책에 도움이 되는 ESCO사업을 조기에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일이었지만 덕분에 발전 속도가 무척 빨라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ESCO의 기본은 기술과 자본입니다. 이제 ESCO들은 일방적인 정부의 지원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기술력을 배양하고 자금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오 사무관은 ESCO사업이 단순한 조명개체 사업에 머물고 있다는 향간의 비판에 대해서 일축했다.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는 이야기다. 조명에서부터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기술력을 축적해나가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APT와 같은 공동주택에서도 반드시 ESCO들이 진단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그는 생각하고 있다. 성과배분방식이 됐든 미국식의 성과보증계약이 됐든 ESCO들을 통하는 것이 정확한 진단과 제품선별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에너지분야에서만 15년 근무, ESCO사업에 일조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보람 느껴

오 사무관이 ESCO업무를 담당하면서 가장 보람을 느끼는 것은 과천청사, 광화문중앙청사, 한국공항공단 등에서의

ESCO사업이다. 이들 대형 공공기관에서의 ESCO사업은 곧바로 공공부문에서의 기폭제 역할을 했고 가장 모범적인 ESCO사업의 사례로 정착했기 때문이다.

또 학교시설에 대한 ESCO사업은 그를 흐뭇하게 만드는 것 중 하나. 관동대 도서관을 방문하여 학생, 사서직원, 재단 관계자들에게 물어보니 모두 밝아져서 너무 좋아했다. 그 모습을 보고 오 사무관은 “ESCO사업은 에너지절약 뿐만 아니라 국가의 백년대계인 교육과 같은 미래투자사업”이라는 긍지를 갖게 되었다. 그 역시 1남1녀의 아버지로서 학생들의 학습분위기 증진과 시력보호를 생각할 때 어깨춤이 절로 났던 것.

그가 꼽는 가장 큰 애로는 “ESCO제도가 선진제도이다 보니 ESCO, 에너지사용자, 공무원, 금융기관 종사자들 모두를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 일”이었다. 특히 우리 금융관행이 후진적 구조로 되어 있어 에너지절약전문기업들이 많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지만 오 사무관은 비교적 낙관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제 ESCO업계의 과제는 어떻게 하면 내실화를 기할 수 있는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민간자본의 유입과 진단시장의 활성화가 중요하다. 진단문제에 있어서 지금의 상태를 의사의 ‘왕진’으로 비유하고 있는 오 사무관은 앞으로는 에너지수용기들이 ESCO라는 진료기관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머지 않아 진단전문 ESCO의 출현도 기대해 볼만하다고.

오경찬 사무관과의 인터뷰는 명쾌하게 시작해서 명쾌하게 끝났다. 그만큼 ESCO업무가 손에 익었다는 반증일 것이다. 동력자원부 시절에 공무원으로 입문하여 20년째 근무하고 있는 오 사무관은 석유, 가스, 전기 수요관리 등의 업무를 두루 거친 산자부 내에 몇 안 되는 에너지 전문가이다. 인터뷰 말미에 그가 던진 경구의 의미를 잘 새겨보는 것만으로도 ESCO에게 저는 그의 기대를 짐작할 수 있겠다.

“과학이 증기기관에 베푼 은혜보다는 증기기관이 과학에 베푼 은혜가 더 크다.”